

크레그의 일기

크레그 케첩

비씨주 랭리에 위치한 트리니티웨스턴대학 졸업생

북한을 방문했던 일주일 동안 북한의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수도 평양을 벗어나자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발육이 부진해 보였습니다. 그런데 퍼스트 스텝스의 지속가능한 투자가 들어간 곳에서는 북한 어린이들의 미래가 조금은 밝을 수 있다는 것이 확연해 보였습니다. 어린이들은 콩우유와 스프링클스의 혜택도 물론 받지만, 그보다 더 큰 사랑을 퍼스트 스텝스의 노력과 방문을 통해서 듬뿍 받고 있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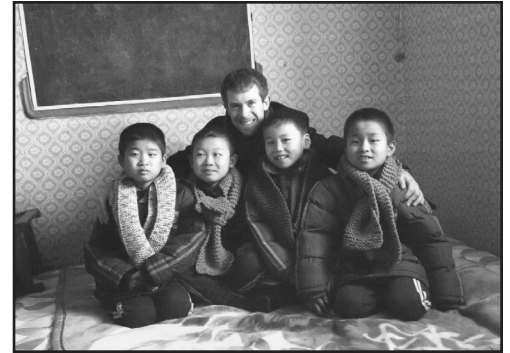
북한에서 펼쳐지는 퍼스트 스텝스의 활동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북한의 관료들도 퍼스트 스텝스라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러한 믿음은 아마도 콩우유와 스프링클스 프로그램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생겼을 것입니다.

퍼스트 스텝스가 더욱 성장하면서 어린이들의 건강이 더욱 좋아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

11월 23일 (화)

두 번째로 북한을 방문했다. 도착해서 고려호텔에 짐을 풀고 침대에 쓰러졌다. 너무나 많은 감정들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다.

북한 사람들의 상황이 마치 내 것과 같이 느껴지면서 분노와 슬픔이 솟구친다. 이번에는 처음으로 잘 꾸며진 수도 평양을 벗어나서 농촌의 작은 도시에 가 보게 된다.



원산 고아원에서 새로 받은 목도리를 두른 어린이들과 함께 있는 크레그

한반도의 상황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도 오해로 가득한 갈등 상황인 듯하다. 서로 상대방을 탓하는 이 곳.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인해 두 주권국가로 갈라진 한 민족. 한쪽에서는 물자가 넘쳐나고, 한쪽에서는 굶주린다.

60년 넘게 지속된 분단 상황. 남북한과 그들의 우방국은 언제쯤이나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려는지. 슬프다.

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기도를 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화해에 필요한 것으로 인도하신다. 용서와 인내, 믿음과 희망, 그리고 사랑. 잠들려는 찰나,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. 하나님의 계획

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게 될 것이다. 너무 감정에 몰입되어 주님의 임재를 잇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하신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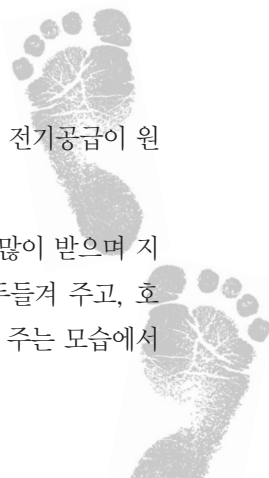


원산 고아원 어린이들의 웃음꽃

11월 24일 (수)

남포에 있는 콩우유 시설, 고아원, 유치원 방문. 전기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이 도시에 97만 명이나 산다.

어린이들은 교사와 돌보는 이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며 지내는 것 같다. 사랑스러운 듯 엉덩이를 톡톡 두들겨 주고, 호호 불어서 뜨거운 콩우유를 식혀서 꼬마들에게 주는 모습에서



어린이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볼 수 있다.

식사시간에 어린이들을 촬영하면서 캠코더의 LCD화면을 돌려서 어린이들에게 캠코더에 찍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했다. 몰려드는 어린이들.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침 면도 후 오후에 다시 까칠해진 내 수염을 살며시 만져보는 여자아이. 서로를 바라본다. 언어 장벽으로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, 사랑과 애정은 전세상 모든 사람의 공용어인 것이 분명하다. 갓 만들어 나온 콩우유로 배를 채우는 어린이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한 녀석이 내 무릎을 의자 삼아 앉는다.



원산 육아원에서 세 쌍둥이와 함께한 샘

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누구를 치지도 않고 - 눈 삼을 들고 길을 치우고 있는 수백 명의 일꾼들은 마지막 순간 까지도 꿈쩍도 않는다 - 얼음과 눈과 어두운 터널(장장 4km에 달하는 것도!)을 뚫고 잘도 간다.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느낀다. 우리의 제한된 일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가 방문하는 모든 곳에서 최대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신다.

11월 25일 (목)

저녁에 북한 국립교향악단 연주를 봤다. 110명의 단원이 각종 클래식 악기와 한국 전통악기를 들고 나왔다. 무대 한 가운데 빨간색 피아노가 놓여 있다. 정권의 색.



통천 유치원의 즐거운 간식시간

첫 곡은 나라의 번영을 기원하는 곡. 입이 딱 벌어진다. 피아노의 놀라운 기교가 현악기와 화합을 이룬다. 60명도 넘는 바이올리니스트는 마치 한 사람처럼 하나되어 연주한다. 아주 강력한 연주.

비제의 카르멘 전주곡을 포함해서 듣기 좋은 곡 몇몇 들려주더니, 연주회 마지막 곡은 “우리 장군님”이라는 김정일 찬양곡이다.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단원도 보

인다, 군인답게, 북한스럽게. 외국인도 북한인도 모두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.

11월 27일 (토)

출발이 늦어졌는데 오히려 잘 된 것이었다. 차로 원산까지 가야 하는 긴 여정. 일기 예보대로 눈이 내리는데, 산골을 지나갈 때는 눈보라가 심하게 날리는 날씨다. 몇몇 트럭과 버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차는 길가에서 있다. 참 신기하게도 우리 버스

11월 28일 (일)

원산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해안 고속도로. 눈에 띄는 것이 많다. 사바나 같은 지형에 구 소련 시대에서나 봤을 법한 오두막과 철교가 있다. 길 옆으로는 소나무와 다른 나무들이 늘어서 있는데, 봄에는 아름답지 싶다. 지금은 황량할 뿐. 옥빛 바다와 모래사장은 길에서 한 50-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. 콘크리트 슬래브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. 버스를 타고 있는데 진동 때문에 꼭 기차를 탄 기분이다. 소가 끄는 수레와 삼을 가지고 일꾼들이 모래로 길을 정비하고 있다. 50명도 넘게 일하고 있는데 주의 표시가 전혀 없다. 버스 운전사가 굽어지는 고속도로 구간에서 조심운전을 한 덕에 눈보라와 터널을 모두 아무런 사고 없이 통과했다.

평양에서 원산으로 가는 길은 산골을 통과한 후 오랫동안 농사지어온 넓은 평야가 나온다. 똑같이 생긴 집들로 구성된 마을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먹여 살리는 농사를 짓는다. 농지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기 위하여 집들은 거의 산 쪽으로 붙어 있다. 하지만 원산은 올해 태풍과 지진해일로



원산의 봉춘 콩우유 식료공장 일꾼들

모든 작물과 가축을 잃었다. 그래서 원산을 집중적으로 도우려 한다. 바이타카우를 더 가져오고 의약품도 가져와서 겨울바람의 칼끝을 조금이나마 꺾어보려고. 많은 고아원과 기숙학교는 이 겨울을 난방 없이 보내야 한단다. 지붕이 새는 곳도 여럿 있다. 시급하지만 해결이 가능한 일들. 후원자들이 퍼스트 스텝스와 손잡고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.